

사드 보고 누락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시

관련자 추가조사 ... 국방개혁 실효탄·軍 인사 태풍 예고 靑 “추가 반입 사실 황교안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다”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국방개혁 실효탄이 돼 군 인사에 태풍이 예고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고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이 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며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된 뒤 업무 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

사대가 추가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수석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 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보고 누락’ 이상의 ‘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핵심장비 반입 사실을 국군통수권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방해한 국기문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고강도 군 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곧 발족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고강도 국방개혁과 군 기강 확립 대책 등이 마련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물갈이 수준의 인사 태풍이 국방부에 몰아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염미봉 광주여성재단 대표 후보자 기부금 편법증여 등 각종 의혹 논란

인사청문회 통과 주목

염미봉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기부금 편법증여에 소득세 신고 누락, 직무수행 계획서 과도한 표절 등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 인사검증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공모 과정에서 광주지역 특정 여성인사들에게만 여성재단 사업계획서와 실적서 등 내부자료가 제공돼 “불공정한 공모 절차”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남(서구 3) 광주시의원은 이날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염 후보자가 본인 이사로 활동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자료에 따르면 염 후보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2156만원을 광주 여성의전화에 기부하면서 실질 기부자가 아닌 친할 명의로 입금해 해당 자녀가 세제 혜택을 받도록 도와줬다.

김 의원은 특히 “기부금 지정단체 간부를 맡으면서 직위를 이용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후보는 “제 생각이 짧았고 부족했다. 그 정도

로 기부해서 딸에게 혜택을 가는 것이 법 위반인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염 후보자가 연간 수천만원의 강의로 수입을 거두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반재신(북구1) 의원은 “후보자가 1회당 20만~30만원씩, 매달 200만~300만원의 강의로 수입을 거두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염 후보자는 “몰랐다”고 하기에 과다한 금액이다”고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특위위원은 “이 정도 도덕성으로 여성단체를 어떻게 이끌 수 있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위는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뒤 14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이후 광주시장이 정식 임명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바다송어로 의약품 만든다

전남도해양수산원-비알팜 협약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연어와 어류를 활용한 의약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매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품용 바다송어 생산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5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바다송어 연중 양식에 성공, 투자회사인 (주)비알팜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바다송어 정액과 정소에 함유된 의약품 성분 연구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연어와 어류의 정액과 정소는 피부 재생 치료제, 점안액, 관절 치료제 등 재생 의약품 원료로 사용돼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투자회사는 고품질 금산면에 의약품 및 가공용 바다송어 양식시설 건립에 134억원을 투자하고, 건립 후 원료의 10%만 자가 생산하고, 90%는 양식어가와 계약생산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현충원 묘역 참배하는 유족

현충원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지난해 김 생산 34만2000t 생산액 3952억 사상 최고 불구

가공업체 영세 ... 생산·수출 타지 대기업이 맡아

지난해 10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생산한 전남지역 김 생산량과 생산액이 각각 34만2000t, 3952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생산량은 전년보다 8%, 생산액은 19% 증가했다.

전남도는 5일 “지난해 11월까지 초기 작황은 고수온과 고홍, 장홍 등 동부해역 황백화 현상으로 좋지 않았지만 주 생산 시기인 1~3월 적정수온 유지, 영양염 유입,

자연체묘 부착 등으로 양식 환경이 회복되면서 생산량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채취 시기 동안 강풍에 의한 염채 탈락이나 시설물 파손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생산량 증가에 한몫했다.

전남도는 김 수출 증가에 따른 물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김 양식어장을 확대해 생산을 늘리고 불규칙한 어장을 재배치하며, 주기적인 김발 노출을 관리하는 등 지

속적 어장관리로 김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해왔다.

2017년산 김 생산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양식 시설물 철거 등 어장관리를 홍보하고, 2018년에도 냉동망 채묘시설 확충, 우량종자 개발·보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묘 및 생산으로 물길 생산액 4000억원 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또 김 가공시설의 설치와 신제품 개발, 대기업 육성 및 유

등을 통해 김 산업을 1조원으로 키울 예정이다.

전남도내에는 김 가공업체의 78%가 몰려 있으나 대부분 영세해 유명 상품 생산이나 수출 등은 다른 지역 대기업들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김 수출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물길 가격 및 수요가 매년 상승할 것”이라며 “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건강한 김 종자 배양관리, 친환경·고품질 김 양식 생산을 위한 무기산 사용 근절, 밀집어장 재배치 등 철저한 어장관리에 어업인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참조기·부세 양식 희망 어가 우량종자 분양합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에 이어 참조기와 부세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 방류 및 민간어업인 대상 분양을 추진한다.

4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씨가 마른 명태처럼 참조기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안정적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굴비의 고장 영광군과 함께 연구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는 참조기 약 60만 마리, 부세 14만 마리의 종자를 생산해 지난달 29일 단오제를 맞아 어린 참조기 3만 마리, 어린 부세 10만 마리를 영광 법성포에 방류했다.

이러 6월 중 어린 참조기 3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어린 참조기 방류는 재포획률이 15.6%로 대하(4%)보다 방류 효과가 높은 편이다.

또 안정적 굴비 원료 확보를 위해 참조기 양식을 희망하는 어가에 우량종자 약 30만 마리를 분양하고 양식 기술 컨설팅까지 해 올해 12월까지 120~130g 상품 크기의 참조기를 생산한다는 목표다. 2011년 6만에 달하던 참조기 생산량은 2016년 2만선까지 무너졌고, 올 들어서 3월 말 현재까지 어획량이 500t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77.6%로 줄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국민은행 전남근무 희망 신입사원 27일 도청서 면접

오는 27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KB국민은행 신입사원 지역 채용 현장 면접이 열린다. 4월 전남도는 “이번 현장면접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채용 기회를 확대하려고 전남도와 은행 측이 협의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현장면접 예정 인원은 300명으로, 오는 12~16일 KB국민은행 채용 홈페이지

지(http://kbstar.career.co.kr)에서 선착순 사전 접수한다. 지원 자격은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이 전남 거주자로서 전남 근무 희망자면 된다.

현장면접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오는 8~9월 예정인 정식 공채시험 지원 시 1차 서류전형 면제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113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